

明清代 舌診 發展에 관한 고찰

李興求* · 安相佑

* 大田大學校大醫院, 韓國韓醫學研究院

中文抄錄

A Historical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Tongue Inspection in Ming and Ching Dynasty

Lee Heunggu* · Ahn Sangwoo

*Oriental Medical College of Daejeon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通過對明清代診斷學發展史的考察, 得到了如下結論:

到了明代, 出現了大量的有關望診的專門書籍, 并且, 開始對小兒指紋進行了望診研究, 還有, 對舌診的發展已經有了卓越認識. 明代的四診和辨證學說的發展與吳又可的『溫疫論』開始擡頭的溫病學說的發展有密接的連繫. 到了明代, 已經對六經辨證, 臟腑辨證和八綱辨證有了系統而完善的辨證體系, 特別是開始出現了溫病辨證.

對於清代的望診的發展特徵, 可以歸納為對於舌診的大量研究和有關望診的專門書籍的出現. 特別是隨着溫病學說的發展而共同發展的舌診的變化也很突出.

Key words : Inspection of the Tongue, Ming and Ching Dynasty, Diagnosis, Epidemic Febrile Disease

I. 서론

의학의 목적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는데,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汪宏은 『望診遵經·序』에서 “非診이면 無以知其病이오 非診이면 無以知其治也라 …… 是故로 寒熱補瀉之法은 因診而定이오 標本先後之理는 因診而分이오 七方·十

劑·八法·九針도 莫不因診以決하야 用舍焉이나라”¹⁾라고 하여 진단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데, 치료의 방법과 순서가 모두 진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진단의 기법은 단순하게 한 시대에 어느 聖人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에 걸친 韓醫學의 발전과정을 따라 함께 완성되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寸口脈法은 遍診法, 三部九

1) 汪宏, 望診遵經, 五洲出版社, 臺北, 1984. p. 1.

候脈法, 氣口人迎脈法, 趺陽脈法 등의 다양한 切診들이 이론의 발전과 진단기법의 단순화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舌診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히 舌體의 動態나 病變만을 파악하던 수준이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傷寒學說과 溫病學說의 발전에 따라 全身의 거의 모든 氣血狀態까지 舌診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診斷學의 발전은 『脈經』의 著述로부터 큰 전환기를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진단학은 수많은 진단기법들이 개발되고 死藏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느 시기 診斷學의 실체와 질적 수준은 자료의 부족, 당시 진단기법들의 復原問題 등으로 인하여 연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脈經』의 저술 이후로는 새로운 진단기법을 개발하는 쪽의 발전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진단 방법을 인체의 經絡, 藏象, 氣血津液代謝, 運氣 등의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완성시켜 가는 쪽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脈經』 이후로 새로운 진단기법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의학이 과거지향적인 학문이라고 오인한다. 그러나 『脈經』 이후로 비록 새로운 진단기법의 개발은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寸口脈法을 비롯한 다양한 진단법을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정리하며, 완성시키는 연구가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례로 寸關尺 三部에 臟腑를 배속하는 방법에 대한 各家의 서로 다른 견해들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실체에 대한 관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氣血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목적인 한방진단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한 토론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학 발전의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 明·清代는 현재의 이론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성숙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明代는 金元時代의 눈부신 醫學理論의 성과를 이어받았으며, 清代 溫病學의 발전, 中西匯通醫學의 발전 등 새로운 의학의 轉機를 유발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清代는 역사적으로 중국민족이 異民族에게 점령을 당한 시기로 벼슬길에 오르기 더욱

힘들어진 漢族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의학에 전념하게 된 시기이다. 따라서 다른 시대에 비하여 많은 著作들과 새로운 醫學思想의 발전이 있었다. 아울러, 清代 皇室이 元代와는 달리 중국 문화를 인정하고 발전시킨 시기여서 중국의학의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清代에는 『內經』, 『傷寒論』 등 기존의 漢醫學 原典에 대한 대량의 注解書가 출간되었고, 溫病學, 中西匯通醫學과 같은 현대 中醫學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새로운 이론들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진단학 또한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診斷學 방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四診에 대한 이론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졌으며, 이 時期에 이루어진 傷寒·溫病學派의 論爭을 통하여 四診과 辨證理論들이 완성되었다. 또 溫病學說의 발전에 따라 舌診과 辨氣學說이 완성되고, 三焦辨證, 衛氣營血辨證 등의 새로운 辨證技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재의 診斷學說이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는 明清代의 진단학 발전 성과를 연구하던 중 특히 두드러진 발전상을 보이는 舌診을 중심으로 알게 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明代 診斷學의 성과

明代의 진단학은 脈診과 舌診의 발전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 주로 前代의 學術思想에 대해 整理하고 深化하는 것을 그 주된 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鑑別診斷과 辨證, 醫案의 정리에 있어서도 한층 發展을 이루었다.

明代 이전 醫家들 중 일부는 종종 脈象만으로 질병을 진단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明代에는 적지 않은 의학적에서 四診을 모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時珍의 『瀕湖脈學』은 비록 脈學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특히 “世之醫病兩家 咸以脈爲首務 不

知脈乃四診之末 謂之巧者爾 上士欲會其全 非備四診不可”²⁾라고 언급하여 맥만으로 모든 병을 진단하고자 하는 풍조를 비판하였다.

『簡明醫數』에서는 「臨病須知」라는 구절을 두어 四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논한 바 있다.

“切脈固重 望聞問尤居先 當細察受病之源 辨其所現之象 望其色之榮枯 聞其聲之勇怯 問其飲食進否 喜冷喜熱 探其胸腹有無痛處 便溺秘利 驗其日晴鼻舌氣息 蹠臥挺身 向內向外 次診脈理 明表裏虛實 寒熱陰陽 有餘不足 與外證相參合不合 酌見病之淺深正變 明辨病之同異 眞似 追溯病前口如何 又豫科病後日如何 …… 病劇者 再候兩足太谿 太衝 衝陽之脈 更驗服過某方某藥 着意詳審 盡得病情 始擬方立案”

이와 같이 四診을 모두 참조할 것과 診斷에 임하는 의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환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在患病者 尤當以自己平日嗜好性情及受病原由 詳細說與醫者 倘諱疾忌醫 則是助庸醫之謬 掣明醫之肘 而自貽其禍也”

즉,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의사에게 보이고 진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³⁾

1658年 喻嘉言(1585~약1664)은 『醫門法律』의 第一卷에서 四診을 습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논술하였고, 아울러 6條律을 제정하여 의사가 四診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지적하였다. 또 이 책에서는 問診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였는데, “凡治病 不問病人所便 不得其情 草草診過 用藥無據 多所傷殘 醫之過也”라고 하여 患者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⁴⁾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의학을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먼저 問診을 익힐 것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55조

의 마땅히 질문해야 할 것들을 열거하였다.⁵⁾

張介賓은 특히 “十問歌”를 지었는데, “一問寒熱 二問汗 三問頭身 四問便 五問飲食 六問胸 七聾八渴俱當辨 九因脈色察陰陽”이라고 하여 반드시 필요한 問診의 항목을 제시하였다.⁶⁾

아울러, 이 시기의 診斷學 發展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 溫病學說의 萌芽로부터 발생하는 問診의 “辨氣學說”과 “傷寒辨脈 溫病察舌”의 主張으로 대표되는 溫病診斷의 발전이다.

이상과 같이 明代 진단학 분야에서는 脈診과 舌診이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四診合參, 辨證學說, 鑑別診斷, 醫案의 發展, 溫病診斷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2. 明代 舌診의 發展

明代에 이르러 舌診은 임상의各科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 의학서 중에서도 거의 모두 舌診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薛己의 『薛氏醫案』, 王肯堂의 『證治準繩』, 張介賓의 『景岳全書』 등의 서적은 『黃帝內經』, 『傷寒雜病論』, 『放氏傷寒金鏡錄』 이래의 舌診의 경험을 계승, 발전시켜 舌診의 발전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

舌診學說의 발전은明代에 이르러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吳氏傷寒金鏡錄』이 등장한 이후 明·清朝의 舌診 연구는 그 著述이 현저하게 많아졌는데, 그중에는 入門書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적도 있었고, 혹은 論述과 研究를 중심으로 서술한 서적도 있었다. 또 그림을 덧붙여 실어놓은 서적도 있었다.

일찍이 1445년에 陶華는 『傷寒点点金書』를 저술하였는데, 오로지 舌診만을 논하였으며, 明·嘉靖 年間에

2) 朴兌 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 6.

3)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1992. p. 313.

4) 甄志亞主編, 같은 책, p. 313.

5) 甄志亞主編, 같은 책, p. 313.

6) 甄志亞主編, 같은 책, p. 313.

7) 박종기·윤창열, 舌診의 歷史·原理 및 動向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21.

는 다시 抄本에 彩色이 더해진 서적이 출현한다.

16세기 말엽에 申斗垣(拱辰)이 臨床證候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당시 舌診의 大成이라 할 수 있는 『傷寒觀舌心法』을 저술하였고, 모두 137쪽에 그림을 제시하고,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⁸⁾.

明代에 간행된 서적으로서 舌診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서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陶華가 지은 『醫家秘本傷寒大全』, 『傷寒瑣言』, 『傷寒全生集』, 『傷寒明理續論』에는 모두 舌診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 중 『傷寒瑣言』의 舌診은 『敖氏傷寒金鏡錄』의 실진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밝힌 부분은 비록 적지만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⁹⁾.

『傷寒明理續論』은 陶華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成無己의 『傷寒明理論』 체제와 내용을 참고하여 보충 수정한 것으로 대략 1445년경에 완성되었다. 이 책에서의 舌診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成無己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만 心得한 내용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¹⁰⁾.

薛己는 『敖氏傷寒金鏡錄』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기록함으로써 舌診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薛氏醫案』속에 ‘舌症’, ‘治驗’, ‘驗證舌法’ 등편을 두어 舌과 五臟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口舌腫痛 …… 爲中氣虛熱 眼如烟觸 體倦少食 或午後益甚 爲陰血虛熱 若咽痛舌瘡 口乾足熱 日晡益甚 爲腎經虛火”¹¹⁾ 등등의 내용이다. 이것들은 모두 내용이 자못 상세한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薛己는 기타 口齒類要, 內科摘要, 保嬰撮要(薛鎧撰 薛己增補) 등의 서적에서도 舌病과 관련된 다수의 醫案을 기록하고 있다.

徐春甫는 1556년 『古今醫統大全』을 편집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도 舌病의 치료와 舌診의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는 舌病의 치료에 있어 內經의 이론 및 前人の 治案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수 기록하였으며 杜本の 三十六般辨視舌色法과 三十六舌法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¹³⁾¹⁴⁾.

1602년 王肯堂은 『證治準繩』을 지었는데 내용속에는 舌診에 관한 기록이 풍부하고 수집한 내용이 광범위하며 小兒의 諸病 및 雜症辨舌에 대해서 깊이 체험한 사실이 실려 있다. 雜病證治準繩의 舌條에는 舌의 생리 병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는데 書論이 분명하여 좋은 참고가 되며 傷寒證治準繩에는 杜清碧驗證舌法이 36圖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¹⁵⁾¹⁶⁾.

1624년 張介賓은 『景岳全書』를 지었는데 이 책 속에는 ‘舌色辨’(傷寒典十八) 등의 전문적인 篇이 있어 舌色을 중심으로 辨證論治하고 있는데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景岳은 처음으로 ‘舌神’의 學說을 제기하였는데, “當察其根本 …… 如果色連地而灰暗無神 此其本原已敗”라고 하였다¹⁷⁾¹⁸⁾.

이외에도 李梴의 『醫學入門』, 孫一奎의 『赤水玄珠』, 龔信的 『古今醫鑑』, 龔廷賢의 『萬病回春』 등에도 舌診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1687년에 陳士鏗이 저술한 『石室秘錄』안에는 傷寒辯舌秘法이 들어 있다¹⁹⁾.

8) 張樹生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 11.

9)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1.

10)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1.

11) 薛己, 薛氏醫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89.

12)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1.

13)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 698-701.

14)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2.

15) 王肯堂, 證治準繩(三), 傷寒,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 267-273.

16)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2.

17)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p. 122.

18)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2.

舌診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파로는 濇病學派가 있다. 明末清初의 濇病學派인 吳有性은 1642년 『溫疫論』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脈을 위주로 하던 진단방법에서 舌診을 응용하여 濇病을 진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瘧病察舌’의 단서를 열었다. 그 중 ‘白苔如積粉’은 溫熱疫邪의 診斷 특징이며 邪伏募原한 標識로써 溫疫病에 下法을 사용하는 舌象의 특징이 되므로 濇病은 舌의 진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明代에 나온 舌診전문서로는 16세기 말엽에 申斗垣이 지은 『傷寒觀舌心法』이 있다. 이 책은 그 이전까지의 舌診의 경험을 총괄하여 杜淸碧의 36舌圖를 演繹하고 137개의 舌圖를 그려 내용이 풍부하고 醫論이 정밀하며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종합한 일대의 명저이지만 너무 번거로워서 활용하기에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²⁰⁾.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갈 내용이 있는데, 이 시기 중국의 舌診에 관한 내용은 조선, 일본 및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국제적인 공헌을 하였다. 許浚이 이은 『東醫實鑑』의 「口舌條」에는 『醫學入門』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 있으며, 舌上生苔에 대해서는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의 說을 인용하고 있다. 일본인 丹波元胤이 1831년 지은 醫籍考속에도 『敖氏傷寒金鏡錄』과 『傷寒觀舌心法』 등의 篇目이 기재되어 있다.

폴란드의 선교사인 Michael Boym은 1671년 舌診에 관한 문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의 나라에서 출판하였는데 이로부터 중국의 舌診에 관한 내용이 西歐의 여러 나라에게 流傳하게 되었다²¹⁾. 明·申拱辰이 저술한 『傷寒觀舌心法』 1卷에서는 그 後序에서 말하기를 “余忘之餐寢 存之心神 累之紙筆 績積多年 今已成冊 總計一百三十五舌 圖繪其形 卽分其經 觀其舌知其所苦 明其運氣 知其死生 用之湯液 救其危殆 悉皆載焉 眞乃傷寒科指南第一秘術也”²²⁾라고 하

었다. 申氏는 『外科啓玄』의 저자로 이 책은 16세기 말엽에 저술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失傳되고 없다. 張吾仁이 撰한 『撰集傷寒世驗精法』이 있는데, 1666년에 孫張이 編纂한 것으로 卷首에 『傷寒辯舌世驗精法』이 부록되어 있다. 그중에 三十六舌圖는 『傷寒金鏡錄』에서 나온 것이며 治方은 仲景을 본받았다²³⁾.

明代의 舌診 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마땅히 濇病學派의 학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濇病學者들은 ‘傷寒辨脈’, ‘濇病察舌’을 주장하였다. 즉 온병학파는 舌診의 발전에 엄청나게 공헌하였다. ‘濇病察舌’에 대해서 맨 처음 主唱한 사람은 吳又可로서 그 뒤에 各家를 거치면서 점차 계통화하면서 완성되었다. 吳氏의 이름은 有性으로 江蘇震澤人이며 1642년에 『溫疫論』을 저술하였고, 舌診을 濇病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진단법으로 응용하였다²⁴⁾.

3. 清代 診斷學의 성과

清朝에는 望診이 매우 발전되어 많은 專門書籍들이 출현하였다. 그 특징적인 점은 舌診의 대량적인 연구와 望診의 전문서적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수많은 人型類書와 全書, 經典의 註釋研究 및 四診研究의 전문서적이 대량 등장함에 따라 자연히 望診도 발전되었다.

清代의 吳謙 등이 編著한 『醫宗金鑑』에는 『四診心法要訣』이 있는데, 四言歌訣로 간략하게 四診의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何夢瑤의 『四診韻語』는 四診心法の 요점을 잡아서 望色, 察面, 五官, 脣齒, 辨舌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1723년에는 『四診決微』가 완성되었는데 清代 林之翰이 저술한 것이다. 林之翰의 字는 憲百이고 號는 慎庵이며 蘇東人이다. 이 책은 모두 8권인데 부록 1권이 더 있다. 이 것은 望診,

19) 張樹生主編, 같은 책, p. 11.
 20)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2.
 21) 박종기·윤창열, 위의 논문, p. 22.
 2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 446.
 23) 鄧鐵濤主編, 實川中醫診斷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p. 22.
 24) 張樹生主編, 같은 책, p. 12.

聞診, 問診, 切診의 전문서적이다. 林之翰은 四診이 임상에서 똑 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四診爲岐黃之首務 而望尤爲切緊”²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卷一, 卷二에서 望診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고, 顏面, 五官, 苗竅, 牙齒, 頸項, 爪甲, 舌診 등의 변화와 望神氣, 望形色 등으로 주된 내용을 삼고 있다. 아울러, 그는 兒科의 望診을 부록에 담아 놓았으며, 小兒의 指紋, 八段錦 등의 診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술하였다.²⁶⁾

이 시기의 望診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중국에서 최초로 望診 전문서적인 『望診遵經』이 1875년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작자는 汪宏인 데 字는 廣庵이며 清代 新安人이다. 그는 『內經』, 『難經』, 『傷寒』, 『金匱』와 기타 前賢들의 저술 중에서 望診과 관련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였으며, 자신의 견해를 결부시켜 서술하였다. 그는 經義를 따르는 한편 여기에 整理, 分析, 比較를 가하여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望診 專門 論著를 구성하였다. 이 책은 上卷과 下卷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권은 望診에 대해 총체적으로 論述하였고 望診의 原理, 方法, 內容, 注意事項과 運用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하권에서는 望診을 부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각론에 해당한다. 眼目, 口舌, 脣齒, 鬚髮, 腹背, 手足, 毫毛, 肌膚, 脈絡, 筋骨, 爪甲, 乳房, 外腎, 陰莖과 汗, 血, 痰, 便, 尿 등에 대해서 望診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形體, 身形, 身容, 形態, 行止 動靜, 坐臥, 疑態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全書는 綱目을 갖추어 條理가 분명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이는 光緒 이전의 望診學에 대한 총결이라 할 수 있으며 望診學의 발전에 크게 貢獻한 서적이다.²⁷⁾

4. 清代 舌診의 발전

舌診學說의 발전은 清代에 이르러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吳氏傷寒金鏡錄』이 등장한 이후 清朝의 舌

診 연구는 그 저술이 현저하게 많아졌는데, 그중에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적도 있었고, 혹은 論述과 연구한 내용을 담은 서적도 있다. 때로는 그림을 동원하여 논술한 서적도 있다. 清代 康熙 7년에 江蘇 吳縣人인 張登은 字는 澌先인데 그 아버지인 張璐(碩頑)의 家學을 계승하여 『傷寒舌鑿』을 저술하였으며, 『傷寒緒論·辨舌』(張璐著)이론에 미쳐서 申氏의 『觀舌心法』에 대해서 그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그림을 120종 실었는데, 白, 黃, 黑, 灰, 霉醬 등의 5종 苔色과 紅, 紫, 藍 등의 3종 舌色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용면에서 古人의 苔와 質에 대한 분류가 영성하였던 것에 비한다면, 張璐는 이미 간략하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舌診에 대한 一大進歩라고 할 수 있다. 乾隆 연간에 徐靈胎의 『舌鑿總論』은 張璐의 『舌鑿』을 근거로 완성된 것이다. 同治 연간에 江蘇 太倉人인 傅松元(字 耐寒)이 저술한 『傅氏三書』 중에 『舌苔統志』가 있는데 혀를 가지고 外感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雜病도 辨證하였으며, 苔色과 舌色의 구별을 중시하였다. 光緒 연간에 劉以仁이 편찬한 『活人心法』은 杜本, 張登, 段正誼, 『溫疫論』 중에 舌圖와 관련한 것을 모아서 모두 149개의 舌圖를 만들었는데, 가히 清代 이전 舌診學의 總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뒤에 廣東 茂名人인 梁玉瑜는 6대에 걸쳐 家傳된 비법에 의한 舌治法 경험을 근거로 『舌鑿辨正』을 저술하였다. 여기에는 149개의 舌圖가 실려 있고, “刮舌驗苔”, “分經辨證” 등의 관점을 제시하였다.²⁸⁾

淸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마땅히 溫病學派의 학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溫病學者들은 “傷寒辨脈”, “溫病察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온병학과는 舌診에 대해서 크게 貢獻하였다. “溫病察舌”에 대해서 맨 처음 主唱한 사람은 吳又可로서 그 뒤에 各家를 거치면서 점차 계통화되고 완성되었다. 吳氏의 이름은 有性으로 江蘇 震澤人이며 1642년에 『溫疫論』을 저술하였다. 그는 溫病의 진단에 舌診을 매우 중요하게 응용

25) 林之翰, 四診決微, 歷代中醫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730.

26) 張樹生主編, 같은 책, p. 10.

27) 張樹生主編, 같은 책, pp. 10-11.

28) 張樹生主編, 같은 책, pp. 10-13.

하였다. 葉天士의 『臨証指南醫案』 중에도 또한 舌診에 관한 기술이 많이 들어있다. 葉天士 저작의 특징은 비교적 전반적으로 舌診의 방법, 내용, 의의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余師愚는 1794년에 『疫診一得』을 저술하였으며, 薛生白은 『醫經原旨』, 『濕熱論』을 저술하였고, 陳平伯은 『外感溫病篇』 등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溫病의 察舌理論에 대해서 풍부하고 충실한 소개를 하고 있다. 특히 吳鞠通의 『溫病條辨』에서는 葉天士의 舌辨衛氣營血理論을 결합하여 설진으로 三焦를 辨別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古書에서는 “舌胎”라는 명칭이 많이 눈에 띄는데 吳鞠通은 이를 “舌苔”로 정정하였다.²⁹⁾

清代 舌診學의 발전은 진문의학서가 아닌 기타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永樂大全醫藥集』이나 『醫部全錄』 등과 같은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비교적 많은 분량의 내용이 취합되어 있다.

그 밖에 清代의 서적 가운데 설진이 언급된 것으로는 胡玉海的 『傷寒一書』에 『傷寒舌苔辨』이 있다. 또 張石頑이 1695년에 쓴 『傷寒緒論』에서는 『辨舌』이 있고, 陶華가 1719년에 쓴 『陶氏傷寒完書』에는 『臨証舌辨』, 石濟南의 『醫源』(1861)에는 『雜辨舌苔辨證篇』과 『溫熱辨舌心法』, 吳坤安이 1796년에 저술한 『傷寒指章』에는 『察舌辨證歌』가 있으며, 江筆花가 1824년에 저술한 『醫鏡』 등에도 모두 舌診學에 대한 闡述이 들어있다.³⁰⁾

이 시기의 舌診에 대한 전문서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1701년에 王景韓이 저술한 『舌鏡』과 楊雲峰과 劉巨瑞가 1754년에서 1898년에 저술한 『臨証驗舌心法』과 『察舌辨證新法』이 있고, 王蘇門이 1789년에 저술한 『傷寒辨舌秘錄』이 있고, 1830년에 葉氏가 찬한 『傷寒玉液辨舌色法』, 1840년의 辛廷鎬가 저술한 『三十六舌歌』, 1877년 何愚 등이 편찬한 『舌圖辨證』, 1890년 周鏡湖

가 저술한 『傷寒舌』 등이 모두 舌診에 대한 전문서이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舌診學의 전문서가 있는데 저자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1751년의 『舌辨要略』과 1866년의 『舌鑿新書』, 1877년의 『眞傳傷寒舌苔圖論』, 1896년의 『舌診』 등이 모두 舌診學說의 발전에 공헌한 서적들이다.³¹⁾

清代 舌診의 독특한 공헌은 溫病에 辨舌한 것을 들 수 있다. 그중에 溫病의 大家인 葉天士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溫熱論』(1746) 중에 辨舌을 따로 두어서 舌의 動態變化에 따라 鑑別診斷하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疾病의 進退와 豫候를 이해하고 치료의 방향을 잡았다. 예를 들면 白苔로는 表를 主하고 濕을 主한다고 하고, 薄苔는 表에 많이 있고, 厚苔는 裏에 많이 있으며, 潤苔는 津液이 아직 완전히 傷하지는 않은 것이고 燥苔는 津液이 이미 傷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厚濁粘膩한 경우는 痰濕穢濁이 많은 것이라고 하였다.³²⁾

黃苔는 裏와 實과 熱을 主한다고 하였으며, 白色을 띠고 있는 자는 表邪가 未盡하고 薄한 자는 병이 얇고, 厚한 자는 병이 깊다. 이런 경우 黃苔의 潤燥는 津液의 손상여부를 제시하는데, 焦燥하여 舌刺를 일으키면서 裂紋이 있는 자는 陽明腑實證이 되고, 厚膩한 경우는 濕熱이 鬱蒸된 것이다.³³⁾

黑苔는 위급한 증후이며 焦燥한 경우는 毒熱이 熾盛하였기 때문인데, 熱은 眞陰을 動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潤滑한 경우는 陰虛有汗하거나 혹은 痰濁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³⁴⁾

또한 舌質의 변화는 邪氣가 營血에 침입한 것을 분석하는데, 色의 紅, 絳, 紫에 근거한다. 문질렀을 때 津液의 有無와 舌體의 枯脹 여부와 쪽 났을 때 제대로 되는가의 여부는 질병의 傳變과 陰液의 存亡을 판단하는 관건이다.

29) 張樹生主編, 같은 책, pp. 10-13.

30) 張樹生主編, 같은 책, pp. 10-13.

31) 張樹生主編, 같은 책, pp. 10-13.

32) 鄧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p. 22.

33)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34)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葉氏의 辨舌 경험은 비교적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며 매우 실용적인 것이다. 아울러, 후세 溫病학과의 法式이 된 내용이다. 이밖에 冷薄荷水를 가지고 舌苔를 씻어낸 다음에 손으로 舌質을 문질러 관찰한 경험 등은 모두 前人들이 알아내지 못한 방법들이다.³⁵⁾

1764년에는 徐靈胎가 지은 『舌鑿總論』이란 서적이 출간되었는데 작자는 白苔와 黃苔, 黑苔, 灰苔, 紅舌, 霉齶舌, 紫色舌, 藍色舌 등의 舌의 병리와 치법을 간략하게 논술하였고 아울러, 임신부의 傷寒舌을 제시하였다.³⁶⁾

1874년에는 傅松元이 『舌胎統志』를 저술하였는데, 서문에서 “余歷覽『金鏡錄』之三十六圖 『觀舌心法』之百三十五圖 張澐先『傷寒舌鑿』之百二十圖 葉天士溫證辨舌之數百言 雖議論頗詳 惜只辨于傷寒之門 絕不與雜證同談 不知雜證在裏之邪 昭昭于舌上者也復不少 然則采傷寒之捷徑 以補雜證中之妙用 又豈不可 因作『舌胎統志』 續傷寒之旁門 開雜證之便道 匯成一書 以公同志”라고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舌質의 辨證을 枯白舌, 淡白舌, 淡紅舌, 正紅舌, 紅絳舌, 紫色舌, 青色舌, 黑色舌로 나누었으며 내용이 자못 풍부하다는 것이다.³⁷⁾³⁸⁾

1875년에는 汪宏이 『望診遵經』을 저술하였는데, 望舌診法 중에 5조의 大綱을 提出하였다. 즉, 形容, 氣色, 胎垢, 津液, 部位로 나누어 “五者分論 則其體明 五者合觀 則其用達矣”라고 하여, 5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강조하였다.³⁹⁾

1894년에는 梁玉瑜가 전하고, 陶保廉이 수록한 『舌鑑辨正』이 나왔다. 범례에는 “四川萬縣王文選所刻『活人心法』四冊 內有『舌鑑』據云合張氏一百二十舌 『薛氏醫案』三十六舌 梁邑段正誼溫疫十三舌 擇錄一百四十

九舌 …… 今取此爲原本”이라고 하여 조문에 따라 辨正하였다. 책 중에는 卷首에 全舌分經圖가 그려져 있고, 明代 良醫들의 秘傳을 이어받아 각종 舌狀과 證治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五行과 顏色의 生克에 따라서 豫候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⁴⁰⁾

清·張登은 『傷寒舌鑿』(1667)을 저술하였는데, 自序에서 『觀舌心法』에서부터 내려온 착오를 바로잡았으며, 煩雜한 것을 없애고 傷寒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빼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張璐의 治按에 기재된 내용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120가지 그림을 첨가하였다. 그중에는 白色과 黃色, 黑色, 灰色, 紫色 등의 여러 종류의 舌苔를 포함하고 있고, 妊娠 중 傷寒舌도 덧붙여 놓았다. 또 각각에 모두 總論이 있으며, 그림마다 설명이 있어서 察舌辨證에 참고가치가 매우 크다.⁴¹⁾

이상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清代에 들어와 舌診은 이미 四診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부분이 되었다. 여러 醫家들은 清代 以前의 舌診經驗을 계승하여 많은 舌診專門書를 편찬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張登의 『傷寒舌鑿』, 徐大椿의 『舌鑿總論』, 王文選의 『傷寒舌鑿』, 梁玉瑜의 『舌鑿辨正』 등이 있다. 그리고 비록 舌診의 전문서는 아닐지라도 舌診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대단히 많다.

먼저 清代에 간행된 舌診專門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비록 舌診전문서는 아니지만 舌診에 대한 내용을 특징 있게 기술하고 있는 책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溫病學의 발전과 더불어 간행된 溫病學 서적에 나타난 舌診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5)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36)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37)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38) 李乃民主編, 中國舌診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p. 226.

39)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40)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41) 鄧鐵濤主編, 같은 책, p. 22.

(가) 이 時期에 간행된 舌診專門書와 그 특징

張登의 字는 誕先이고 張璐의 長子이다. 그는 申斗垣의 『傷寒觀舌心法』을 바탕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傷寒과 관련 없는 것을 빼버리고 부친과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여 120圖의 舌圖를 만들어 1668년 『傷寒舌鑿』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傷寒의 舌診을 白, 黑, 黃, 灰, 紅, 紫, 霉, 醬, 藍 등 8종의 舌苔로 구분하였고, 妊娠傷寒舌診法도 추가하였으며 6종의 舌診에 총론이외에 각각 舌圖에 설명을 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白苔舌總論 및 제1조 微白滑苔舌~제29조 白苔如積粉舌
- 黃苔舌總論 및 제30조 純黃微乾舌~제46조 黃根白尖短縮舌
- 黑苔舌總論 및 제47조 純黑舌~제60조 黑乾短舌
- 灰色舌總論 및 제61조 純灰舌~제71조 邊灰中紫舌
- 紅色舌總論 및 제72조 純紅舌~제97조 紅嫩無津舌
- 紫色舌總論 및 제98조 純紫舌~제109조 淡紫灰心舌
- 微醬色苔舌總論 및 제110조 純霉醬色舌~제112조 霉色中黃苔舌
- 藍色苔舌總論 및 제113조 純藍舌~제114조 藍紋舌
- 妊娠傷寒舌總論 제115조 孕婦傷寒白苔舌~제120조 孕婦傷寒卷短舌⁴²⁾

四庫全書提要에서는 이 책에 대해 “案 欽定 古經은 于診候之外에 兼及辨色聆音이로대 而未嘗以舌觀病이오 舌白 胎滑之說은 始見張機傷寒論하야 其傳亦古나 然이나 其法不詳하며 亦未嘗言及種種之別이라 後金鏡錄이 推至三十六圖나 未爲賅備라가 觀舌心法이 衍至一百三十七圖나 又頗病繁蕪라 登이 以己所閱歷으로 參證于二書之間하야 削煩正舛하야 以成是書하니 較之脈候隱微 欽定 尤易考驗하니 固診傷寒者所宜參取也라”⁴³⁾

라 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해하였으나 汪琥는 “琥按 欽定 舌苔는 但有白黃黑三者而已니 杜清碧推廣敖氏驗舌法하야 爲三十六圖할새 其中에 又增純紅舌하고 其餘等舌은 已半屬無據라 今廣至一百二十圖하니 何其多歟아 就其中言紫色舌 藍色舌은 亦甚有理하니 蓋熱極則色紫하며 寒極則色藍하니 藍者는 微青色也라 至其言灰色 霉醬色二舌은 亦甚不必하니 蓋灰色은 卽淡黑이오 霉醬色은 卽深紫也라 張氏每借一色하야 卽化爲數十圖하니 何其穿鑿고”⁴⁴⁾라 하여 너무 세분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陳修園醫書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1764년 徐大椿은 『舌鑿總論』을 撰하였다. 이 책은 대부분 舌白總論, 舌黃總論, 舌黑總論, 舌灰色總論, 舌紅色總論, 舌霉醬色總論, 舌紫色總論, 舌藍色總論, 妊娠傷寒舌總論 등 9개의 총론으로 되어 있는데 張登의 『傷寒舌鑿』을 참고하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⁴⁵⁾. 이외에도 舌診에 대한 전문서로 『舌鑿圖』 및 『舌胎圖說』 등을 남겼다.

『傷寒舌鑿』은 清代 劉以仁이 지은 『活人心法』의 卷中の 한 부분으로 王文選이 지었으며 1838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張誕先의 120舌, 杜清碧의 36舌, 梁邑段正誼의 『溫疫論』의 13舌 중에서 149舌을 취하여 분류한 것으로 張氏가 분류한 舌이 가장 많고 자신의 견해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이 책은 溫熱病의 辨舌經驗에 대해 과거의 책보다 보충한 내용이 많으며 대단히 풍부하다. 王氏는 149舌을 마치면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以上諸舌驗病은 不可固執專方하고 宜審問虛實이오 加減用藥은 貴在活法이라 總之 欽定 驗舌者는 以手拭舌滑而軟者는 病屬陰하고 相而燥者는 病在陽이라 胸喜熱物하면 病在陰하고 胸喜冷飲하면 病屬陽이라 病屬陰者는 宜溫宜散이 固美오 病屬陽者는 宜解宜下가 方宜라

42) 李乃民主編, 같은 책, pp. 98-104.

43)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②, 서울, 醫聖堂影印, 1993. pp. 877-878.

44) 嚴世芸主編, 같은 책, p. 878.

45)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1969. pp. 145-149.

惟在臨證圖機務察兼症이니 諒人虛實하여 虛則衛母하고 實則泄子라 視病緩急에 急則治標하고 緩則治本이오 定要細心審視하여 切勿大意輕忽이니 慎之慎之어다”⁴⁶⁾

1874년 傅松元(耐寒)은 『舌胎統志』를 간행하였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余嘗歷覽金鏡錄之三十六圖와 觀舌心法之百有三十七圖와 張誕先傷寒舌鑿之百二十圖와 葉天士溫證舌辨之數百言하니 雖議論頗詳이나 惜只辨於傷寒之門이오 絕不與雜證同談하니 不知雜證在裏之邪가 昭昭於舌上者도 也復不少라 然則採傷寒門之捷徑하여 以補雜證中之妙用이면 又豈不可리오 因作舌胎統志하여 續傷寒之傍門하고 開雜症之便道하여 匯成一書하여 以公同道하노라”⁴⁷⁾

傅氏는 舌色을 枯白舌, 淡白舌, 淡紅舌, 王紅舌, 絳色舌, 紫色舌, 青色舌, 黑色舌의 8종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淡白舌은 傅松元이 처음 제창한 것이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옛사람은 胎色(苔色)으로 分門하였지만 傅氏는 舌色으로 分門한 것인데 그 이유는 舌이 本이 되고 胎(苔)가 標가 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책은 분류법이 독특하고 내용이 자세하며 자신의 경험도 많이 기록하고 있다.

舌鑿辨正은 茂名의 梁玉璣(字特巖)가 지은 책인데 秀水의 陶保康(字拙存)이 1894년 신강의 우르무치에서 간행하였다. 陶氏는 서문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癸巳年에 신강에서 벼슬할 때 心煩骨疼甚한데 醫師가 虛證이라 하여 滋陰降火之劑를 투여하였다. 다음 해(甲午, 1894)에 더욱 심하여 밤이 되면 熱氣가 胸膈에 上衝하여 煩躁하고 四肢가 搐戰하였다. 친구가 말하기를 茂名의 梁特巖先生이 대대로 의학에 밝았으며 다른 일로 인해 이 변방에 와 있으니 치료를 부탁해 볼만하다고 하였다. 선생을 만나보니 혀를 내밀어 보라하고는 實熱이라고 판단하였다. 苦寒한 약을 여러 제 투여하니

듣는 자마다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氣衝, 搐戰 등의 증상이 점차 사라지고 몸이 편안하게 되었다. 선생에게 배운 바를 물으니 舌色과 舌苔를 진찰하는 것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家傳을 숨기고 흔쾌히 밝히지 않으니 생각건대 張誕先의 『舌鑿』과 비슷하리라 여겨 그 지역 친구에게 부탁하여 蜀板『舌鑿』을 구해 얻으니 크게 기뻐하며 보여주면서 선생이 이르기를 이것은 家傳之術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였다. 保廉이 每條를 가지고 물으면서 선생에게 오류를 살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니 매일 몇 조씩 기록하여 3개월 만에 2권을 완성하고 『舌鑿辨正』이라고 이름하였다.”⁴⁸⁾

이 책은 梁特巖이 王文選의 舌鑿原本을 가지고 매 조문마다 辨正한 것인데 내용이 대단히 정밀하고 조문은 舌鑿과 동일하게 149조로 되어있으며 雜病의 舌診法도 추가하였다. 그는 舌鑿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① 太拘執五行하여 以顏色之生克으로 決病人之하여 或劇或死하니 不妥라
- ② 太拘執于傷寒日數하고 不知病情萬變하니 安能悉如古法이리오
- ③ 舌鑿은 只以舌色으로 辨傷寒이로대 而不知種種雜病도 皆可以觀舌하여 以辨寒熱虛實이라⁴⁹⁾

이외도 清代에 나온 舌診專門書로써 『舌辨要略』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1751년에 쓴 葛駿(集生)의 序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丁卯年(1747)에 天水의 趙氏집에 머물렀다. 본래 그 집에는 舌胎(苔)秘本이 있었는데 『金鏡錄』보다 자세하였다. 庚戌年(1750)에 이 책을 기록하였다.…… 펼쳐보니 五色으로 分별하였고, 강령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자세히 분류하고 분석하여 몇 종의 胎(苔)色과 종류마다 치법이 모두 언급되어 있어 傷寒의 千變萬化가 모두 이 몇 가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⁵⁰⁾ 현재 抄

46) 李乃民主編, 같은 책, p. 212.

47) 舌診指南, p. 8.

48) 嚴世芸主編, 같은 책, p. 968.

49) 李鳳教編著,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p. 72.

50) 嚴世芸主編, 같은 책, p. 906.

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또 『舌圖辨證』이라는 책이 있는데 張子讓이 짓고 제자인 何愚, 朱黻 등이 편집하였는데 1877년 刊本이 전하고 있다. 何愚, 朱黻이 述하기를 “우리의 스승 張子讓께서 江西에 피난했다가 뒤에 新安의 泰山宮에 거처하시면서 사람을 治療하였다. …… 『舌圖辨證』을 저술하였는데 초고에는 50여조였다가 후에 十二條目으로 總結하고 草稿는 불태워 버렸다. …… 愚와 黻이 오랫동안 배우면서 각각 그림을 베끼고 註를 상세히 가하였다.”⁵¹⁾고 하였으며 虎臥道人은 序에서 “子讓張君 舌圖辨證은 簡而該하고 精而密”⁵²⁾이라 기술하고 있다. 기타 吳貞의 『察舌辨症法』, 葉氏의 『傷寒玉液辨舌色法』, 周鏡湖의 『傷寒舌』, 裘文治의 『舌脈圖』, 無名氏의 『(眞傳) 傷寒舌胎圖論』, 역시 無名氏의 『傷寒觀舌法』 등이 있다.

(나) 일반의서에 기술된 舌診의 내용

清代에는 舌診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醫書속에서도 거의 舌診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중요한 몇 가지 서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1687년 陳士鐸이 편저한 『石室秘錄』은 ‘傷寒辨舌秘法’一篇을 수록하였는데, 주로 舌苔의 변화로부터 邪熱病邪의 輕, 重, 虛, 實 혹은 挾濕이나 傷津을 辨別하는 것으로 자못 새로운 의미가 있다. 1695년 張石頑이 저술한 『傷寒緒論』중의 ‘辨舌’專篇에서 그는 舌象變化가 비록 번잡하지만 8종의 苔色 곧 白·黃·黑·灰·霉醬色苔·紅·紫·藍色의 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傷寒에서 뿐만 아니라 雜病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變證에 도움이 된다.

1723년 林之翰은 『四診抉微』를 撰成하였다. 그는 “전인들이 四診을 논술할 때 舌診에 관하여는 간략하거나 혹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脈理正義』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간결하면서도 상세하며, 卓見이 보이므로 推崇할 만하다”고 하였다. 1796년 吳

坤安이 저술한 『傷寒指掌』에 있는 ‘察舌辨證歌’편은 全書의 精粹이다. 그는 “人病之經絡 臟腑 營衛 氣穴 表裏 陰陽 寒熱 虛實이 畢現于苔라 故로 辨證은 以舌爲主하고 而以脈症兼參之가 此要法也”라고 인식하였는데, 경험담이 매우 많으며, 실로 여러 舌診專門書보다 뛰어난 곳이 있다. 1780년 胡玉海의 『傷寒第一書』중의 ‘傷寒舌苔辨’一章은 六經舌苔의 35법을 제시하여 脈症과 결합하여 三陰, 三陽傳變時期的 舌苔변화를 기술하였는데 六經辨證 중의 舌診方面에 많은 근거를 제공하였다.

1824년 江涵暉이 撰成한 『筆花醫鏡』은 첫머리에 舌의 分部主病說을 提示하여 舌尖主心, 舌中主脾胃, 舌邊主肝膽이라 하였는데, 임상경험을 통한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설진 연구에 대하여도 크게 공헌하였다.

1825년 章楠은 『傷寒論本旨』를 지었는데 이 속에 舌診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는 ‘辨舌苔’라는 글에서 “觀舌本하면 可驗其陰陽虛實하고 審苔垢하면 卽知其邪之寒熱淺深也라”하여 舌體 및 舌質과 舌苔의 임상적인 의의가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30년 翁藻는 『醫鈔類編』을 지었는데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여 舌診과 舌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다.

1861년 石芑南은 『醫原』이라는 책을 지었고 속에 ‘雜病舌苔辨證篇’, ‘溫熱辨舌心法’이 들어 있는데 舌에서 苔가 生하는 기전 및 風寒 暑濕, 燥火 諸病이 舌苔를 變化시키는 영향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⁵³⁾.

1875년 汪宏은 『望診遵經』을 지었는데 舌診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고 체험이 많아 설진 전문서에 버금간다.

1891년 周學海는 『重訂診家直訣』을 짓고 1894년 『形色外診簡摩』를 지었는데, 책 속에 舌診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고 새로운 내용이 많다. 그 가운데 ‘舌質舌苔辨’, ‘舌苔有根無根辨’ 및 黑苔에 대한 분석 등은 모두 前人들의 曠說을 뛰어 넘고 있다. 그는 舌苔와 舌質을 비교하여 논하면서 舌質의 진찰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

51) 嚴世芸主編, 같은 책, p. 951.

52) 嚴世芸主編, 같은 책, p. 950.

53) 李乃民主編, 같은 책, p. 7.

였다. 『診家直訣』에서 그는 “凡察舌에 須分舌苔舌質이니 舌苔雖惡나 舌質如常은 胃氣濁穢而已라”⁵⁴⁾라고 하였고, 『形色外診簡摩』에서는 “舌苔는 無論何色이 皆屬易治니 舌質既變하면 卽當察其色之死活이니 活者는 細察底裏하면 隱隱猶見紅活이니 此不過血氣之有阻滯오 非臟氣之敗壞也며 死者는 底裏全變하야 乾晦枯萎하며 毫無生氣니 是臟氣不至矣니 所謂眞藏之色也라 故로 治病에 必察舌苔오 而察病之吉凶은 則關乎舌質也니라”⁵⁵⁾라고 하였다.

1906년 方仁淵이 지은 『新編湯頭歌訣』속에는 ‘舌苔歌’가 收載되어 있는데 歌賦形式으로 舌診의 내용을 소개하여 외우고 학습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다) 溫病學派의 舌診에 대한 貢獻

溫病學派는 舌診의 연구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공헌이 지대하므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明末 清代中葉은 동양의학에서 溫病學說이 확립되어 점점 성숙한 시기인데, 溫病學說이 傷寒과 구별되는 점은 病因學 發病學에 있어서 疾病의 轉變과정 中的 인식과 治療원칙이 모두 傷寒과 다르며 특히 진단방면에서 ‘溫病에는 察舌하고 傷寒에는 辨脈한다’는 것이 더욱 傷寒과 구별되는 것이다. ‘溫病에는 察舌한다’는 것은 溫病學說의 선구자인 吳又可가 창시하여 그 후에 葉天師, 余師愚, 薛白生, 陳平伯, 吳鞠通, 章虛谷, 王孟英 등의 저명한 溫病학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덧붙여 점차 충실해지고 풍부해지며 날로 완벽하게 되었다. 溫病學派가 舌診學의 발전에 공헌한 것을 평가한다면 吳又可, 余師愚 등은 溫病의 察舌方法을 總結하였으며 葉天師, 吳鞠通은 일련의 전반적인 溫熱病의 察舌法則을 總結하였고 아울러 舌診과 衛氣營血 三焦辨證을 有機的으로 연계하여 溫病의 察舌 辨證施治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대략 1754년에 江蘇 吳縣人인 薛生伯은 『醫經原旨』 『濕熱論』 등의 책을 지었는데 그는 濕熱病의 舌象에 보이는 여러 특징을 제시하여 濕熱病의 辨證施治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동시대의 溫病醫學家인 陳平伯은 『外感溫病篇』(年代는 자세하지 않음)을 지었는데 風溫病 舌苔의 辨證方面에 있어서 조예가 있으며 제시한 예증은 風溫病의 辨證施治에 매우 절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1746~1766년 전후로 葉天士의 『溫熱論』과 『臨證指南醫案』이 그 제자에 의해 정리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葉氏는 舌診의 溫熱病 診斷에 있어서 특수한 작용과 가치를 매우 중시하였으니 『溫熱論』의 전문 36개 조 중에서 舌診을 논한 것이 17조이며 『臨證指南醫案』의 溫熱門 중에는 舌에 의해 病을 論하고 용약한 것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葉氏의 診斷學에 있어서의 주요 공헌은 그가 舌象의 변화와 衛氣營血의 辨證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溫熱病 辨證論治의 주요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葉氏의 察舌方法은 비교적 세밀하니 그의 察舌중에 扞, 擦, 問은 매우 특색이 있다. 葉氏의 察舌은 溫熱病 가운데 病因과 病理를 구분한 정도 외에도 그 최종 목적은 임상에서의 辨證用藥에 있었다.

1794년에 余師愚는 『疫診一得』이라는 책을 썼다. 暑熱疫病의 舌苔에 대해 매우 정밀한 견해를 보였고 또한 새로 개발한 것도 있었으니 예를 들어 疫疹之症의 滿口如霜條에서 “舌苔는 分乎表裏니 至于如霜하면 乃寒極之象이라 在傷寒하야 固當表寒이로대 而疫症如霜하고 舌必厚大하면 此火極水化니 誤用溫表하면 旋卽變黑이라”⁵⁶⁾고 하였다.

1798년에 吳鞠通은 『溫病條辨』을 지었는데 그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舌診運用을 溫病의 屬性에 歸納하고 三焦의 病位를 辨別하고 또한 舌診의 變化에 의하여 임상에서 용약하고 예후와 轉歸를 판단하는 등

54) 馬建中編著, 中國診斷學, 台北, 正中書局, 1987, p. 34.

55) 馬建中編著, 같은 책, p. 34.

56) 余師愚, 疫疹一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21

등 매우 많은 내용을 창안하였다. 舌診의 내용면에서 그는 먼저 ‘舌苔’를 ‘舌苔’로 바꾸었고 아울러 舌苔의 色澤, 舌診의 盈虧, 舌色의 淺深, 舌體의 強弱을 논하였다. 또 葉天士의 舌診에 대해 이미 밝혀진 내용을 繼承하고 검증하는 한편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舌診의 연구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중국의 溫病學派는 매우 많고 그 저서 역시 비교적 많다. 吳鞠通 이후로 章虛谷이 1825년에 지은 『醫門捧暉』과 王孟英이 1852년에 지은 『溫熱經緯』 중에는 모두 많은 舌診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그들은 이미 葉天士의 溫病舌診의 경험을 계승하고 또한 각자 체험하고 창안한 것이 있어 동양의학 舌診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⁵⁷⁾.

V. 結 論

明清代 診斷學의 발전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발전상을 보이는 舌診의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明代 진단학 분야에서는 脈診과 舌診이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四診合參, 辨證學說, 鑑別診斷, 醫案의 發展, 溫病診斷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2. 明代 舌診의 발전은 望診에 대한 專門書籍이 대량으로 등장하였다는 것과 小兒指紋 望診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그 중 舌診의 발전이 매우 탁월하였는데 주로 溫病學說의 형성에 따라 주요 진단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3. 清代 診斷學 발전의 특징은 舌診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舌診 전문서적이 대량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의학서안에도 설진이 주요 진단학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 시기 溫病學說의 발전에 따른 舌診 기법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색인어〉 舌診, 明清代, 診斷, 溫病

참 고 문 헌

1. 朴奭 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0.
2. 박종기·윤창열, 舌診의 歷史·原理 및 動向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1992.
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5. 鄧鐵濤主編, 實用中醫診斷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6. 鄧鐵濤主編, 中醫診斷學, 醫聖堂, 서울, 1993.
7.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8. 薛己, 薛氏醫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9.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 醫聖堂, 서울, 1993.
10. 汪宏, 望診遵經, 五洲出版社, 臺北, 1984.
11. 王肯堂, 證治準繩(三), 傷寒,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2.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13. 張樹生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14.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1992.
15. 林之翰, 四診決微, 歷代中醫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16. 李乃民主編, 中國舌診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17.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1969.
18. 李鳳教編著,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19. 馬建中編著, 中國診斷學, 台北, 正中書局, 1987.
20. 余師愚, 疫疹一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7) 李乃民主編, 같은 책, pp. 7-8.